



새한디애플, 스코덱스 울트라 프로 도입

“다양한 패키지·태그·라벨 응용으로 새 지평 열 것”

우리나라 인쇄업계의 메카인 충무로에서 지난 40여 년 한길 같이 패키지·태그·라벨전문 업체로 활동해 온 새한디애플이 최근 스크린 HD코리아가 공급하는 디지털 엠보싱 전용기 스코덱스 울트라 프로를 도입하고 재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자료제공 | 스크린HD코리아

경쟁력 강화 위해 스코덱스 도입

새한디애플(대표 오성택)은 1969년 스티커 업체인 새한씨링이라는 이름으로 인쇄업계에 첫발을 들여놓았다. 이후 특수인쇄 분야로 시야를 돌리며,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라벨과 의류 부자재용 인쇄물, 패키지, 단상자박스 등의 인쇄물을 주로 생산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위기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오직 패키지, 라이더, 태그 등과 렌즈 단상자, 화장품용 단상자, 아웃도어 패키지 등의 특화된 인쇄물을 고집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성장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엠보싱 전용기인 스코덱스 인쇄

기를 도입함으로써 디지털환경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지금까지 동고동락하며 믿음으로 새한디애플을 찾는 고객에게 조금 더 신선하고 새로운 패키지와 디자인을 제공하는 한편, 이를 통한 고객사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 모델 개발의 꿈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윈윈하는 서비스

새한디애플은 전 직원이 뜻을 합쳐 부여된 과제는 반드시 해결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이에 새한디애플에 의뢰된 인쇄물은 어떠한 공정을 거쳐서라도 기필코 결과물로 돌아온다. 혹시 새한디애플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마음가짐이 깔려 있는 것이다. 또한 새한디애플은 의

사결정이 매우 빠르다. 설비투자나 거래처와의 사업 관계에서도 방향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일을 처리한다. 아울러 새한디애플은 업체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인쇄업체들과 완제품 완성업체들은 정확한 납기, 품질, 수량 등에서 미묘한 실량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새한디애플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새한디애플은 모든 인쇄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패키지 상담 및 기획, 디자인, 인쇄, 후가공, 패키지 등의 전 공정을 거쳐 제작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다. 새한디애플은 기존의 대량 인쇄물은 물론이고, 단납기 소량의 디지털인쇄물도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인쇄 트렌드 변화 부응해 새로운 시장 개척

오성택 새한디앤피 대표는 2014년 전시회에서 스코딕스(S75모델)를 보고 한눈에 ‘내가 원하는 기계가 이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느끼고, 고민을 거듭했다고 한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기존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인데, 좀 더 정확하고 세련되게 표현되는 것뿐인데...’, 기존의 실크인쇄나 에폭시인쇄, 엠보싱인쇄, 에칭인쇄에서 표현할 수 있는 특수효과인데, 이 장비가 정말로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는 것이다. 고민의 결과는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였다. 비슷한 효과와 기능은 있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기존 방식은 스코딕스가 표현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시장은 기존의 실크인쇄나 엠보싱인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고객과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차별화가 필요하고 생각하는 부류로 양분될 것이다. 저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다. 이 장비를 구입하기 전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들었다. 기능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기능은 좋지만 소비자들이 좋아진 만큼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또한 기존방식에 길들여진 고객들은 상이한 디자인 요소, 가격경쟁력, 정교함과 맞바꾼 생산성, 디지털 장비 특유의 민감성과 드러나지 않는 비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건들을 포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더라는 뜻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 시장의 생각은 확고했다. 그는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실크인쇄 시설을 스코딕스로 대체하면 될 것이고, 최소한의 물량을 확보하면 곧바로 사업 응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인쇄업계 트렌드가 디지털화, 소량화, 단납기화됨에 따라 언젠가 다가올 시장에 조금 앞서 가면 지금의 치열한 인쇄시장에서 경쟁하지 않고 새로운 영역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4대 카메라 정확한 핀맞춤 다양한 부가 효과

스코딕스 울트라 프로는 무엇보다 인쇄용



새한디앤피의 패키지 제작 샘플

판재가 없어도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한 번의 인쇄로 다양한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으며, 4대의 카메라로 스캔해 인쇄물의 정확한 핀맞춤이 가능하고, 실크스크린인쇄와 같이 낮은 높이나 점자와 같이 높은 높이에 이르는 여러 모드로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표현하지 못했던 다양한 부가가치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

창작의 기쁨 느낄 수 있는 새한디앤피 추구

새한디앤피는 앞으로도 지난 40여년 걸어온 길을 걸어갈 것이다. 과거에는 대로를 걷다가 쉬기도 하고 옆길도 가보면서 여유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좁은 길에서 앞만 보고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면서 열심히 걸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새한디앤피는 무엇보다 조직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디지털화되는 추세에 따라 인쇄업계도 컴퓨터가 계획하고, 프로그램이 일하며, 장비가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지만 시작과 끝은 항상 사람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패키징 업무를 충실히 하며, 디지털 엠보싱 전용기인 스코딕스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디자인 인력을 강화하고, 소량의 디지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새로운 패키지 개발의 재미를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창작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새한디앤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인쇄인으로서 큰 보람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는 오성택 대표의 신념과 함께. ➡



스코딕스 디지털 엠보싱 기술을 접목하여 제작된 패키지 및 태그